

건강 칼럼

임플란트, 수술 부담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라고 볼 수 있는 요즘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인 회복이 어려운 만큼 평소 꾸준한 관리로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노화의 진행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치주질환이나 치아 마모가 발생되기 쉬우며, 외부의 물리적 손상 등이 원인이 되어 치아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자연치아를 잃게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치아가 상실되면 저작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기 어려워지고,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치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이들이 많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80% 정도 수행할 수 있고, 외관도 비슷하다는 장점으로 선호하는 이들이 많다.

더욱이 노년층에 이르면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여 전체 치아의 기능을 대체해야 하기도 하는데, 본인의 치아 상태를 고려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식립 자체의 난이도가 높고 정



고 상 훈

고르디치과의원 대표원장

밀한 과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치아 구조 및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접근해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였거나 전체 치아가 그 기능을 잃은 무치아 상태라면 치조골의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플란트는 치아를 받쳐주고 지탱하는 잇몸과 뼈의 상태에 따라 식립 방법이 달라진다. 치조골의 양질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부족한 만큼의 뼈를 이식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 등 전신질환이 있다면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 및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당

뇨를 앓고 있다면 임플란트 식립에 제약적이기 때문이다. 신체 치유력이 떨어져 잇몸뼈와의 결합이 지연되거나 실패하기 쉽고, 면역력이 떨어져 구강 내 세균이 독성이 강해지며, 상처부위 회복이 더디게 된다. 혈당 조절이 잘 안되면 치료 중 의식장애를 동반한 저혈당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혈압의 경우에도 아스피린 계열의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지혈이 되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 공포, 스트레스 등으로 자칫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증가한다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이 올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임플란트는 환자가 받는 부담이 큰 편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럴 때는 디지털 진단을 통해 출혈이나 붓기, 감염의 위험성과 시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컴퓨터 분석을 활용한 임플란트 과정이 도움될 수 있다.

3D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장비로 치조골과 치아의 3차원적 관계를 미리 파악하는 등 개개인의 구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한다면 임플란트 뿌리 위치까지도 사전에 결정해서 심기 때문에 오차 없는 식립이 가능하다. 또한, 잇몸 절개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기간이 단축되고 식립 후 회복 기간도 짧아지게 된다.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는 치과가 많아지고 있지만, 단순히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것보다 충분한 경험과 숙련된 의료진이 있는 치과를 찾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최적의 식립 위치를 결정하는 데 유리하고, 숙련된 의료진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진단과 치료 계획을 진행시키는데 유리하다.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유익한 치료계획을 세우고 안내하는 것이다.

사설

검찰수사권 축소 결정 후폭풍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정치권이 어수선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를 공식 요구한 데 이어 일부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거듭 비판하며 탄핵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섰다. 헌재 결정 다음 날 민주당은 곧장 반격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안을 입맛대로 해석해, 수사권을 도로 확대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이른바 '시행령 통치' 제동에도 착수했다.

검찰 수사권 관련 시행령의 위법 여부를 따지고 복원을 요구하는 한편, 다른 시행령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회의

고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은 의도도, 절차도, 내용도 모두 잘못된 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 피해를 막는 게 장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탄핵이 받아들여지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5명의 특정 성향 재판관이 권파적 결정을 했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들은 현재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폭주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국민 의회는 다음에 열리는 법사위에서 민주당 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시행령 관련 입법 움직임도 반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V 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위원들이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줬고 여기에 한상혁 위원장도 개입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소환 조사이를 만에,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년 전에 있었던 종편 재승인 심사를 TV조선은 '조건부'로 간신히 통과했다.

검찰은 당시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준 심사위원이 있었고, 그 과정에 한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방통위 상임 위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대로 의결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따라서 위계공무 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특정 심사위원 위촉

에 직접 관여하거나, 통상 4년 이던 조건부 재승인 유효기간을 임의로 출인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 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관여 안 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자신뿐 아니라 방통위 업무의 투명성이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위원장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승인 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방통위 국장과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 등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검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서면서 이번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만큼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독일 철도·공공서비스, 하루 총파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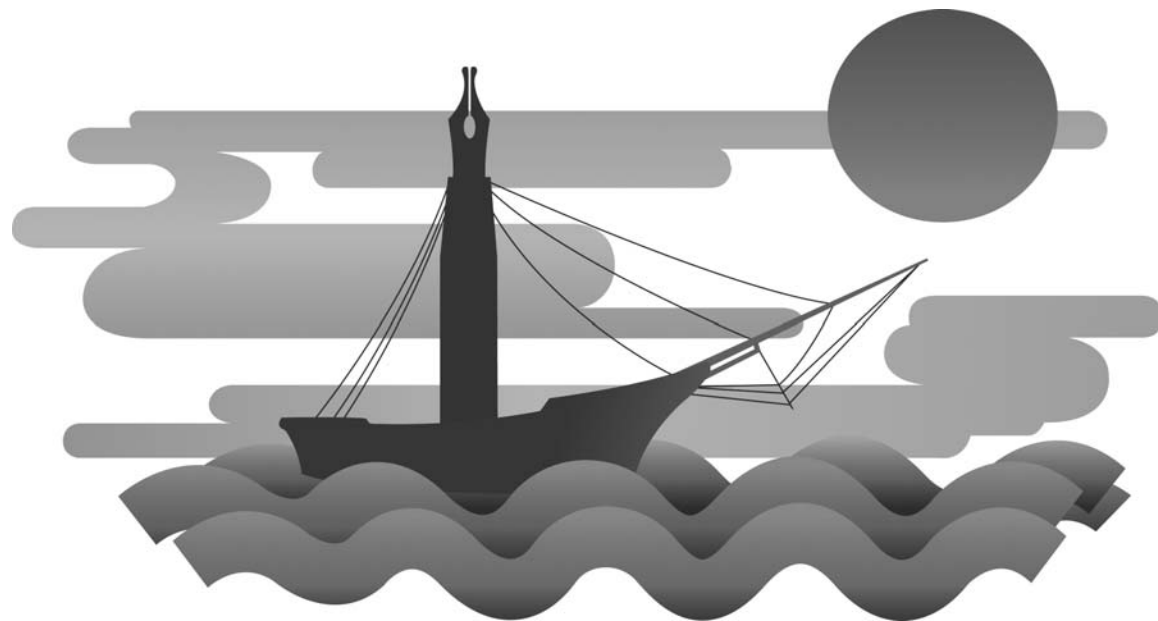
27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기차역에 열차들이 멈춰서 있다. 독일 철도교통 노동조합 EVG와 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합 베르디는 이날 0시를 기해 하루 동안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미국·이스라엘 국기 짓밟는 예멘 후티 반군 지지자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예멘 분쟁 개입 8주년을 맞아 28일(현지시간) 예멘 사나에서 집회가 열려 후티 반군 지지자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짓밟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